

'백신 사각지대' 초등생 이하 코로나 감염 심상치 않다

광주·전남 교육·보육시설 집단감염...학원가 중심 추가확산 우려 무안초 20명 이상 확진...목포선 병원·유흥주점발 확진자 속출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사각지대'인 10대 이하 교육·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신규 감염이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이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그나마 겨울방학 시즌이 시작돼 학교발 집단감염은 꺾일 것으로 보이지만, 방학 중 돌봄 기능 등을 갖춘 방과 후 과정과 학원발 감염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광주에선 코로나19 확진자 91명이 추가됐다. 특히 이 중 40명은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거나 접종 대상이 아닌 초등학생, 유치원생, 어린이집 원생 등 10대 또는 10대 미만이었다.

이날 하루에만 남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10명, 남구 초등학교에서 13명이 확진됐으며 기존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도

추가 확진이 이어졌다. 지난 1주일 기준으로는 10대 미만 70명, 10대 85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다. 순차적으로 방학이 시작되면서 확산세는 점차 약해지겠지만, 방학 동안에도 각 학교별 방과 후 과정, 학원, 스타디오편, 가정 등에서 감염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은 교내 방역 강화, 방학 중 학생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고, 맞춤형 방역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광주에선 추가 사망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엔 고혈압, 뇌경색 등 기저 질환이 있는 90대가 조선대병원에서 숨져 광주 49번째 사망자가 됐다.

전남에선 6일 새벽 0시 기준 5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목포 19명, 무안 9명, 나주 7명, 여수·순천 각 6명, 광양·화순·장성 각 2명 구례·장흥·강진·함평·영광·완도 각 1명이다.

전남에선 이날 오후 2시까지 29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6397명이 됐다. 추가 확진자는 목포 21명, 여수 3명, 함평·영암 각 2명, 담양 1명이다. 목포에선 최근 2곳의 유흥주점, 한국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무안에서는 이날 오후 늦게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서 20명 이상의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선 상태다.

전국에서는 6일 새벽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4126명이 나왔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65만 3792명이 됐다. 확진자 수가 5000명 아래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1월 25일(3937명) 이후 6주 만이다. 지역발생이 3931명, 해외유입이 195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경기 1496명, 서울 1150명, 인천 273명 등으로 수도권에서 총 2919명(74.3%)이 나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부 "방역패스 효과있다" 안정되면 학원·독서실부터 해제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코로나19 유행 감소에 영향을 줬다면 상황이 더 좋아지면 감염 위험이 낮은 '3그룹'부터 적용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그룹에는 학원·독서실·스타디오편·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해당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백브리핑에서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 역량이 확보되면, 거리두기부터 해제한 뒤 방역패스 대상도 위험도가 낮은 기타·3그룹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을 감염 위험도가 높은 1그룹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3그룹까지 구분하고 있다. 유흥시설 등은 1그룹으로 분류되고,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에 속한다. 경륜·경차·경마장 등은 기타 그룹이다.

여기에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3000㎡ 이상 상업·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지난달 6일 방역 강화 조치로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유흥시설 등에서 식당·카페·학원 등으로 대폭 확대한 것에 대해 "상당히 나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달 10~19일 유행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19~25일 완전히 감소하는 패턴으로 전환했다"며 "방역패스 확대와 사적모임 일부 조정의 방역 효과"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1998년 3월 상무지구 택지개발사업 당시 광주도시공사 앞으로 이전했던 '상무대 표석'이 최근 보수 공사를 마친 5·18자유공원으로 이설됐다.

'5·18자유공원' 역사 배움터로 재탄생 광주시, 국비 32억원 투입 전시시설 개선사업 완료

5·18자유공원이 광주의 아픔과 역사를 배우는 공간으로 새 단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광주시는 "2020년 7월부터 국비 32억원을 투입해 5·18자유공원 전시 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영창, 법정 등에서 당시 상황을 재현한 인물모형 100여 개와 종합안내도, 설명 패널 추가 설치 등 전시 시설물이 보수 또는 교체됐으며, 보도블럭도 재설치됐다. 또 휴게시설이 교체되고, 5·18자유관 옥상 및 강당 보수공사, 상무대 표석 이설 작업 등이

진행됐다.

5·18자유공원(서구 상무평화로 13)은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전두교육사령부 계엄부대로, 민주화운동에 나선 지역 인사와 학생운동 지도부, 시민군 등을 체포해 상무대 영창에 가두고 고문 수사를 했던 곳이다.

1998년 3월 상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군부대인 상무대가 장성으로 이전하면서 공원으로 조성됐으며,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상무대 영창 및 전시 인물모형 등을 활용해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알립니다

제66회 신문의 날 표어를 공모합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는 제66회 신문의 날을 맞아 표어를 공모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부문 : 제66회 신문의 날 표어
- 공모기간 : 2022년 1월 3일(월) ~ 2월 28일(월)
- 공모방법 :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에서 공모신청서 작성
- 출품규격 및 출품 작수 : 20자 이내, 개인별 2점 이내
- 시상내역
 - 대 상 1명 (상금 100만원과 상패)
 - 우수상 2명 (상금 50만원과 상패)
- 발 표 : 3월 21일(월) 이후 수상자 개별 통보
- 시 상 : 제66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
- 문 의 처 : 한국신문협회, 02-733-2251/2
- ※ 공모 소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 光州日報社

10a당 연소득, 강황 167만원·애플망고 1320만원

전남도농업기술원, 주요 아열대 작목 수익성 분석 결과 발표 재배기술·판로 따라 소득 편차 심해...농가 의사결정 자료 활용

애플망고 1320만원, 바나나 569만원, 아스파라거스 558만원, 패션푸르트 544만원, 강황 167만원, 레드향 186만원...

전남도농업기술원은 6일 10a(약 300평)짜리 농지에 1년간 재배했을 때 전남 농민들이 거둘 수 있는 아열대 작목별 평균 소득을 이같이 분석, 발표했다.

전남농기원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삼재, 아스파라거스, 오크라, 강황, 패션푸르트, 애플망고 등 8작목의 수익성을 분석했다.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농업기술원은 경영성과분석을, 농촌진흥청에서는 인식도 조사와 경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를 각각 수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삼재의 경우 10a당 연간 총수입 650만8000원, 경영비 296만3000원, 소득 354만5000원 ▲아스파라거스는 총수입 1070만원, 경영비 511만4000원, 소득 558만6000원 ▲'오크라'는 861만4000원의 총수입에서 경영비 312만8000원, 소득 548만6000원 ▲'강황'은 546만원의 총수입에서 경영비 378만1000원, 소득은 167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패션푸르트는 10a당 총수입은 1327만6000원, 경영비 783만2000원, 소득은 544만3000원 ▲'애플망고'는 총수입은 3105만6000원, 경영비 1784만8000원, 소득은 1320만8000원, ▲내륙지역의 '레드향'의 총수입은 1073만9000원, 경영비 887만2000원, 소득 186만7000원 ▲'바나나'의 총수입은 2673만6000원, 경영비 2104만5000원, 소득은 569만1000원으로 각각 산출됐다.

전남농기원 마은미 연구사는 "작목별 단위면적당 연간 소득은 농가 평균값이며, 재배 기술과 판로에 따라 같은 작목을 재배하더라도 농가 간 소득 차이가 크다"며 "아열대 작목 농산물 소득 조사를 지속해서 시행해 농가 의사 결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임야 삽니다 지분환영

중개환영. 010-8902-7900

제일오피스텔 금매

수기동, 20층 중 8층, 33평, 코너 시세 1억-금매 8천만원, 1/31까지 소유자 직매.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육 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 조적벽돌외벽 스타라브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포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중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2. 전원주택용 부지와 식재림 조성 20여년생 8종 1천5백여포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산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포 조성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매 9만원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육 등 다용도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거리 강변 유흥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육 다용도 부지 4,220㎡(1,276평) 매 9십만원
4. 임야 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미늘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옹기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투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옹달샘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지 적합 매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용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유흥플러스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 010-3454-2389

아파트 상가 매매

2억 9,000만원

1,500세대 특점상권

- 물건: 나주 이노시티 예시양 아파트
- 전용면적: 32.76㎡ [10P]
- 매매가: 29,000만
- 부가세: 1,100만 원금

[주]초록공간 010-6786-2600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2. 1. 6. 임시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1주의 금액 10,000원의 주식 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액 금 500원의 주식 20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므로 구주권을 가진 주주님과 일관자께서는 이 공고게 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7일
농협회사법인주식회사 스피리타리팜스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37, 303호
(빛가람동, 트윈스빌딩)
대표이사 한 명 호

光州日報 광고문의 1 062 227.9600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외의 주권제출공고)

운산소방전기 주식회사(이하 "갑")와 우석전력 주식회사(이하 "을")는(은) 2022년 1월 6일 개최된 주주총회결의로 "갑"의 명칭 중 일부인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되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의거하여 채권자 및 주주는 이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갑"의 해당 주주께서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7일
"갑" 운산소방전기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6번길 8, 비02, 비03, 비04, 비05, 비06(은평동, 은평4동광명주유장)
대표이사 전 우 석
"을" 우석전력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방실로 48-1, 1층(서산동)
대표이사 정 우 석

70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들과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내선 •
북 구 • 동 경 266-1920 • 문 통 266-1960
• 북 경 525-3761 • 신 안 222-8171
• 광 산 571-7658 • 오 차 266-7801
• 용 통 433-1503 • 우 산 433-1503
• 남 경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8001 • 송 알 222-9054
• 송 정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송 경 673-6836 • 송 화 675-6605
• 진 울 671-7278
서 구 • 광 천 382-5788 • 삼 부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 천 376-7153
• 치 명 376-6511 • 동 알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